

주요 내용

1. [한국 대학생의 사회 의식과 생활 조사]
개신교 대학생, 동성애 찬성 40%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2022 직장인, 재택에서 다시 오피스로!
 - 2) 한국인의 육류 소비, 쌀 소비 제쳐!



개신교 대학생, 동성애 찬성 40%!

학원복음화협의회(이하 학복협)가 최근 '2022 한국 대학生の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이 2005년 시작한 이후 5번째 추적 조사로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대학생 의식과 삶의 개략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조사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은 '진로/취업 문제'(62%)이며, 취업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도 78%에 달해 청년층의 취업 압박 수준이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는데 대학생들 대다수(89%)가 동의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희망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4%)만 동의하는 현실이다. 불안증/수면장애/우울증 경험도 38%에 달하며 이러한 정서적인 불안증의 경험은 개신교 학생(46%)도 마찬가지였다. 혼전순결/성관계 경험/동성애 인정 등 성(性)에 대한 인식은 더 개방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 특히 개신교 대학생의 40%가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재 대학생들의 성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하게 한다.

이번 <넘버즈 179호>에서는 조사결과 중 '대학生の 사회 의식과 생활'을, 다음 호에서는 '종교 실태를 포함한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 의식과 생활'을 2회에 걸쳐 다룬다. 한국의 대학생/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 조사 결과 1

이 조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 및 사회 그리고 종교 의식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로 2005년, 2009년, 2012년, 2017년에 이어 2022년에 진행한 5차 조사이다. 이번 호는 그 중 대학생 전체의 의식과 생활 일반 관련 조사 결과를 다루었다.

조사 개요

구분	내 용
• 조사 대상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학부생(2~4년제) 및 석·박사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온라인 패널 이용)
• 조사 지역	전국
• 표본 수	총 1,000명(유효 표본)
• 표본 추출 방법	지역별 대학생 수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근거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21 학과수 및 학년별 재적학생수*)
•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법을 가정하여 95% 신뢰 수준에서 $\pm 3.1\%p$ (1,000명 기준)
• 조사 기간	2022년 8월 17일 ~ 8월 31일 (14일간)
• 조사 의뢰 기관	학원복음화협의회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참조 : <https://kess.kedi.re.kr/stats/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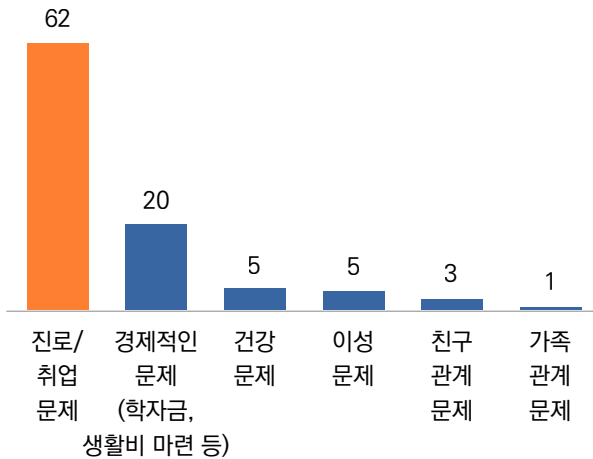
menuCd=0102&cd=5500&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204&uppCd1=010204&uppCd2=010204&flag=A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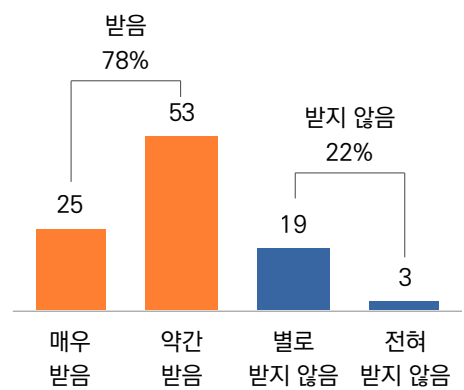
[한국 대학생의 고민과 관심사] 대학생 10명 중 8명은 취업 스트레스 겪어!

- ▶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진로/취업 문제'가 6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 20%, '건강문제' 5%, '이성문제' 5% 등의 순이었다.
- ▶ 이런 고민은 스트레스로 이어져 취업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묻은 결과를 보면 10명 중 8명의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응답해 압박 수준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요즘 가장 큰 고민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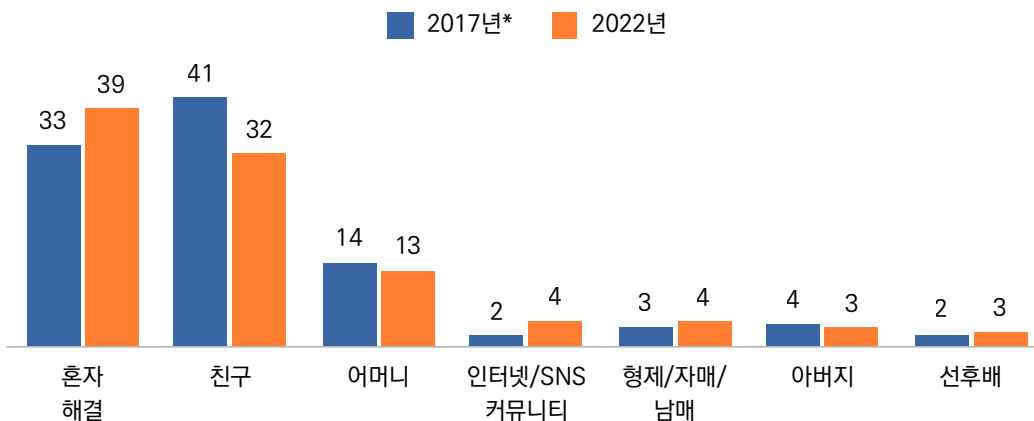
[그림] 취업 스트레스 정도 (%)



◎ 대학생들의 고민 상담, 친구보다 혼자 해결하는 경우(39%) 많다!

- ▶ 고민이 생기면 누구와 상담하는지를 물었더니,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39%로 높았고 2위가 '친구'(32%)로 나타났는데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1,2위가 뒤바뀐 결과이다.
-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관계 맺음의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 관계적 친밀도 또한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고민 상담 상대자 (%)



*2017년 조사 : 학원복음화협의회, 일반대학생 1,000명,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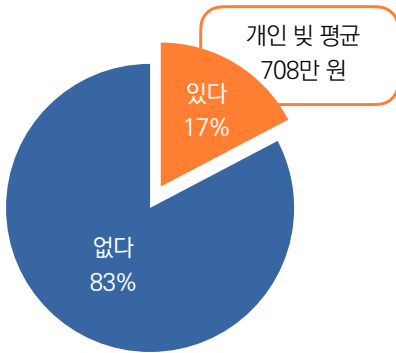
02

[한국 대학생의 경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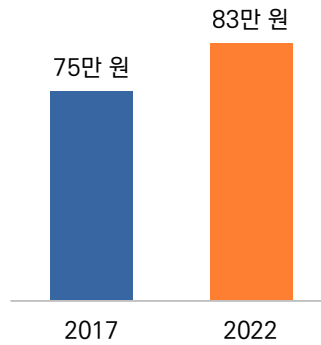
6명 중 1명은 개인 빚 있으며, 평균 빚 708만 원에 달해!

- ▶ 현재 한국 대학생들의 개인 빚(개인생활 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개인 빚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생 6명 중 1명 정도(17%)로 나타났고, 평균 빚 액수는 2022년 708만 원으로 조사됐다.
- ▶ 한편 학생들의 학기 중 한 달 평균 생활비를 묻은 결과, 2022년 평균 83만 원으로 조사돼 2017년 75만 원 대비 8만 원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 대학생 37%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한달 평균 72만 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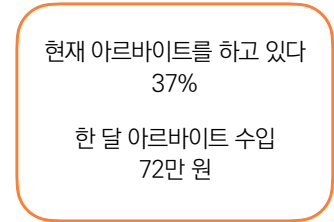
[그림] 개인 빚 여부 (%)



[그림] 한 달 평균 생활비* (학기 중 기준)



[그림] 아르바이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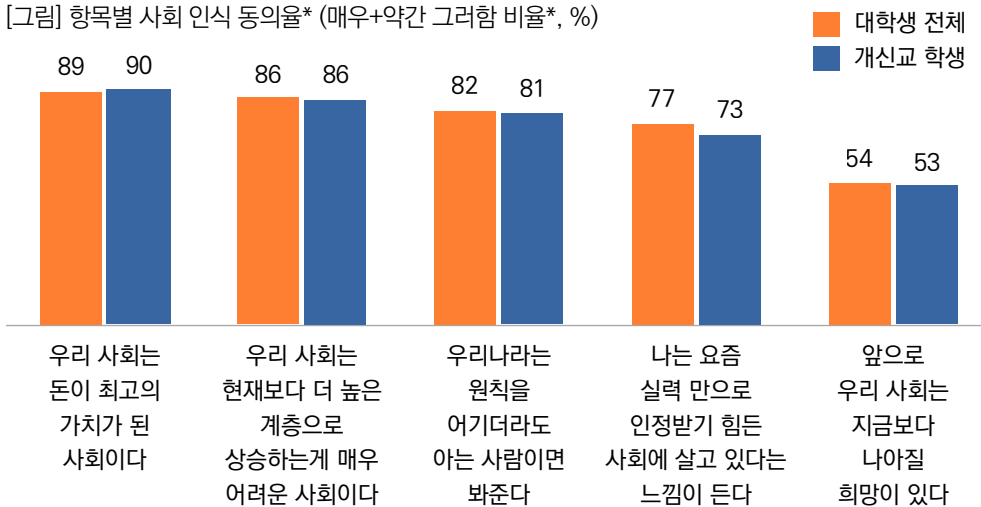


*2017년 조사 : 학원복음화협의회, 일반대학생 1,000명, 온라인 조사

◎ 대학생 대다수, 한국사회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 인식!

- ▶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을 파악하고자 5가지 항목에 대한 동의율을 살펴보니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라는 인식에 대한 동의률이 가장 높았다.
- ▶ 전반적으로 현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희망과 기대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54%)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개신교 학생의 사회 인식을 일반 학생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림] 항목별 사회 인식 동의율* (매우+약간 고려함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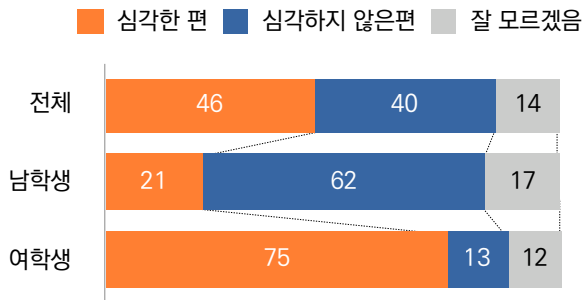
*5점 척도 질문임

03

[한국 대학생의 사회·정치 인식] 양성 평등을 바라보는 시각, 남녀 학생 간 인식 차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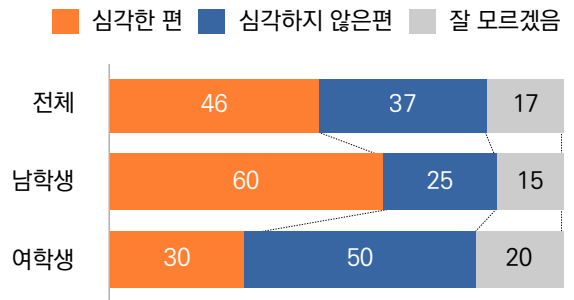
- ▶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각한 편’이라는 인식이 높는데, 성별로 보면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21%인 반면 여학생은 75%에 달해 여학생 본인에 해당하는 성 차별의 정도를 훨씬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남성 차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높는데,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여학생은 30%인 반면 남학생은 60%에 달해 여학생 차별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남학생 본인에 해당하는 성 차별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 (%)



*4점 척도 질문임 (매우+약간, 별로+전혀)

[그림] 남성 차별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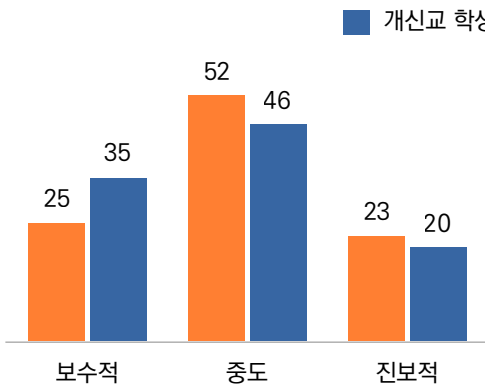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 (매우+약간, 별로+전혀)

◎ 정치적 성향, 남학생은 보수적, 여학생은 진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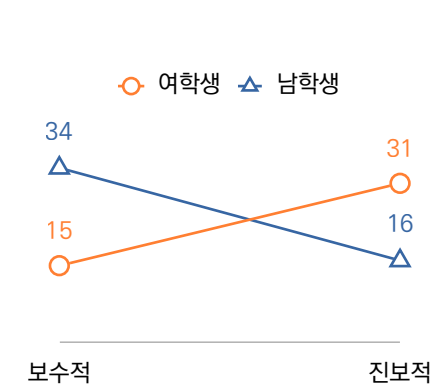
- ▶ 정치적인 성향은 ‘보수적’ 25%, ‘중도’ 52%, ‘진보적’ 23%로 중도가 가장 많은 가운데 ‘보수적’과 ‘진보적’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보수적’이 높고(34%), 여학생은 ‘진보적’이 높아(31%) 남녀 간의 정치 성향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 ▶ 개신교 학생의 경우 전체 학생 대비 중도가 적고 ‘보수적’이 더 많은 경향이 뚜렷했다.

[그림] 정치적 성향* (%)



*5점 척도 질문임 (매우+약간 보수, 매우+약간 진보)

[그림] 남녀의 정치적 성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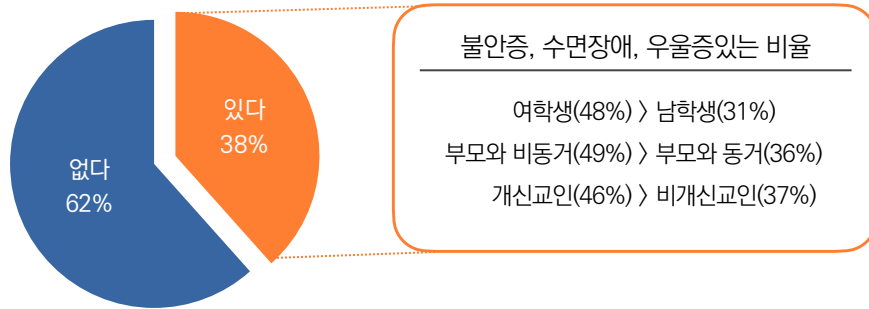


04

[한국 대학생의 정서적·심리적 상태] 10명 중 4명, 현재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 ▶ 대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1년간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 경험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10명 중 4명꼴(38%)로 '있다'고 응답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적지 않았다.
- ▶ 특히, 여학생(48%), 부모와 비동거하는 학생(49%), 개신교 학생(46%)이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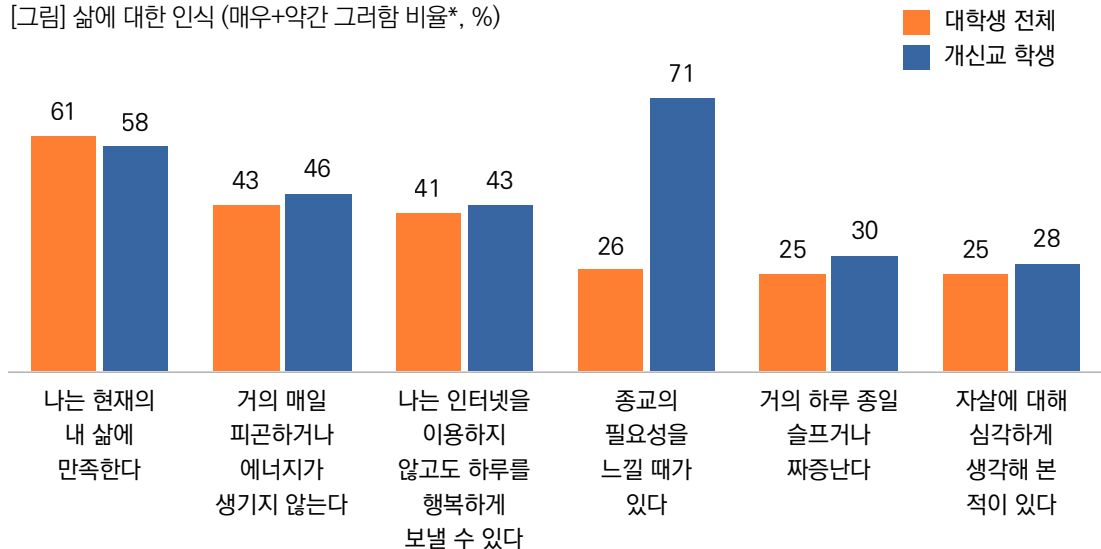
[그림]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 경험 여부 (지난 1년간)



◎ 대학생 절반 가까이, 무기력 상태!

- ▶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로 과반 이상이었는데, 다만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43%,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25%로 나타나 '만족감'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무기력도 상당함을 드러냈다.
- ▶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도 대학생 4명 중 1명으로 적지 않았다.
- ▶ 개신교 학생들이 일반 학생보다 삶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삶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그러함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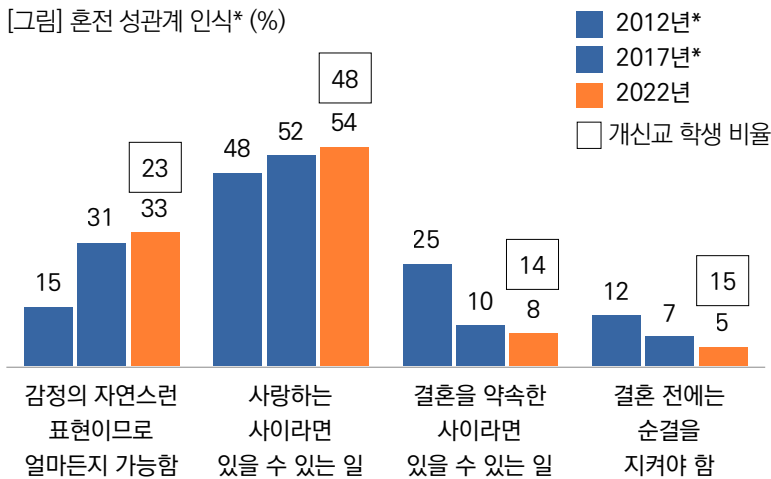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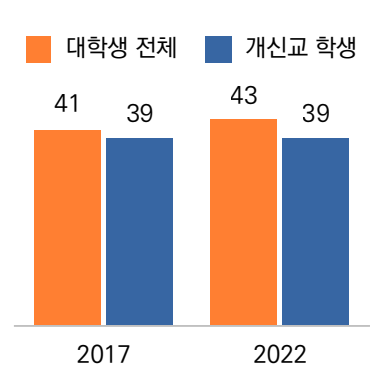
[한국 대학생의 결혼/연애/성 인식] 대학생의 성 인식, 더 개방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

- ▶ 한국 대학생들의 성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혼전 성관계 인식과 성관계 경험을 물었다.
- ▶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결혼 약속한 사이는 가능, 혼전 성관계 안됨)은 조사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결혼과 성관계는 상관없다는 의견(자연스런 감정 표현이라 가능,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능), 즉 혼전 성관계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식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 ▶ 개신교 학생의 ‘혼전순결 지켜야 한다’ 비율은 15%로 낮은 수치이지만 그래도 대학생 전체보다 3배 높았다.
- ▶ 성관계 경험율은 대학생 전체 43%, 개신교 학생 39%로 두 그룹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혼전 성관계 인식* (%)



[그림] 성관계 경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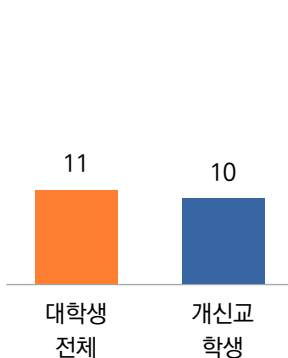


*2012년 조사 : 학원복음화협의회, 일반대학생 1,000명, 개별 면접조사
2017년 조사 : 학원복음화협의회, 일반대학생 1,000명,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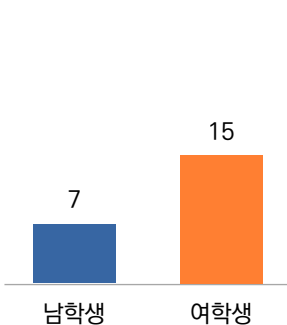
◎ 개신교 대학생 10%, ‘나는 성 소수자!’

- ▶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물은 결과, ‘이성애자’가 89%로 대다수였으나, 성 소수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11%(동성애자 2%, 양성애자 9%)로 10명 중 1명꼴이었으며 여학생 성 소수자가(15%)로 남학생 성 소수자 비율(7%)보다 2배 가량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 ▶ 개신교 학생의 경우도 10%로 일반 대학생 비율과 거의 비슷했다.
- ▶ 동성애 친구나 지인이 있는 비율도 2012년 7%에서 2022년 28%로 4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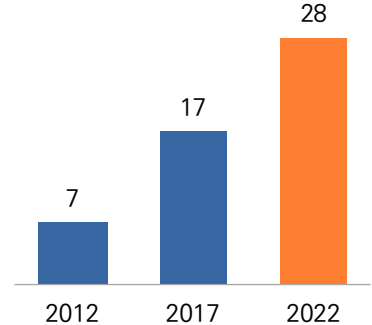
[그림] 성 소수자* 비율 (대학생 전체 vs 개신교 학생, %)



[그림] 성 소수자* 비율 (대학생 전체, 성별, %)



[그림] 동성애 친구나 지인 존재 여부** (대학생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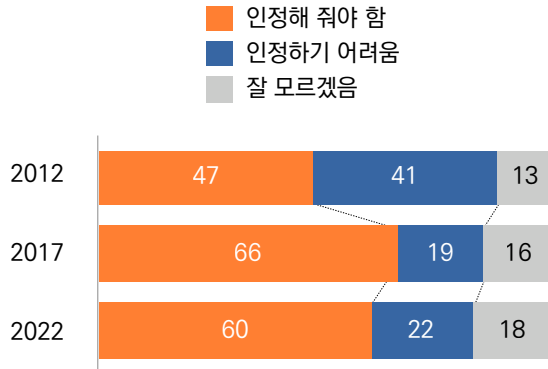
*동성애 + 양성애자

**2012년 조사 : 학원복음화협의회, 일반대학생 1,000명, 개별 면접조사
2017년 조사 : 학원복음화협의회, 일반대학생 1,000명,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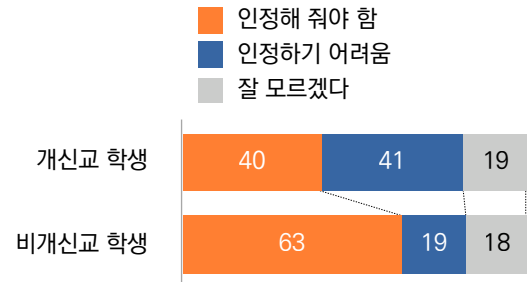
◎ 개신교 대학생 10명 중 4명, 동성애 인정해 줘야!

- ▶ 동성애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긍정과 부정 의견을 제시하고 어느쪽에 더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긍정 인식이 60%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정 인식 2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 ▶ 개신교 학생의 경우 '인정해 줘야 함'이 40%로 비개신교 학생(63%) 보다는 낮았지만, 동성애에 대해 인정하는 비율과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율(41%)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동성애에 대한 견해* (대학생 전체, %)



[그림] 동성애에 대한 견해
(개신교 학생 vs 비개신교 학생, %)



*2012년 조사 : 학원복음화협의회, 일반대학생 1,000명, 개별 면접조사
2017년 조사 : 학원복음화협의회, 일반대학생 1,000명, 온라인 조사

시사점

이 시대 대학생을 이해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아픔'이다. 이 시대 대학생의 아픔은 경제적인 데서 오는 아픔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될 정도로 취업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취업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78%나 되었는데, 이는 대학에 갓 들어와 대학의 낭만에 젖어 있을 1학년조차도 취업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도로 취업 스트레스는 심하다. 대학생이 바라는 일자리는 전일제 근무에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 늘고 파트타임이 늘어나는 현실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앞으로도 이런 고민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 같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고 할 것이고 사람의 자리를 시, 로봇이 대신하면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대학생의 고민은 우리 사회의 척도가 '돈'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대학생들은 돈의 여부에 따라 생활의 수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예와 대우가 달라지는 현실에 절망한다. 그들의 부모는 경제 성장기에 자라서 저축을 하여 종잣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갔다. 하지만 대학생은 이미 벌어진 경제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현실의 늪에 빠져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개신교 대학생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세계관, 가치관이 대학생의 현실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과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은 대학생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38%) 정도가 최근 1년 동안에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삶에 만족하는 비율도 61%밖에 되지 않았으며,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비율도 43%나 되었다. 심지어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다'는 경우도 4명 가운데 1명인 25%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전체 대학생과 개신교 대학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객관적 현실에 대한 해석과 수용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연애 및 성 인식 관련해서는 개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혼전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에 전체 대학생은 54%가 동의해 개신교 학생의 동의율(48%)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개신교 대학생의 성관계 경험률(39%)도 전체 대학생의 경험률(41%)과 비슷했다. 연애 및 성 인식 측면에서 개신교 대학생과 다른 대학생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다.

성소수자(동성애자+양성애자)에 대한 태도도 개방적, 수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주변에 동성애 친구나 지인이 있는지 물어본 질문에 2012년에는 7%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2022년에는 28%로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동성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본인이 성소수자(동성애자+양성애자)라고 밝힌 비율도 11%나 되었는데, 개신교 대학생도 무려 10%나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mammon을 숭배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하는 것이며, 둘째로 개신교가 개신교 대학생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일한 혹은 절대적 조건이 되면 안 된다. 돈이 유일한, 절대적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mammon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버리고 만다.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지 않게 사회적 현실을 바꾸어야 할 책임도 기성세대에게 있지만 척박한 사회 현실에서도 현실적 흐름을 거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용기를 대학생에게 심어주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 하며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지는 청년들이 많아질 때 기독교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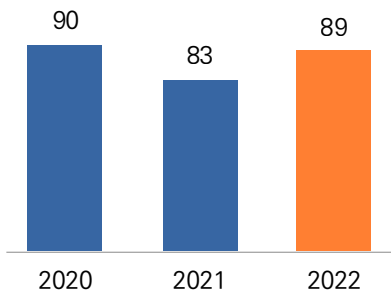
- 1.[2022 직장인, 재택에서 다시 오피스로!]
- 2.[한국인의 육류 소비, 쌀 소비 제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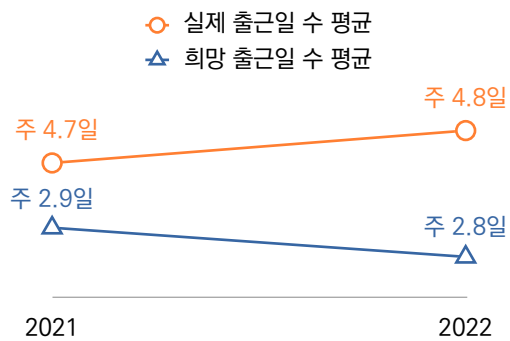
직장인들, 다시 오피스로! 일주일 중 오피스 주 5일 출근 89%!

- ▶ 코로나19가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재택근무 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사무 환경 전문 기업 퍼시스가 출퇴근하는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하여 발간한 '대한민국 오피스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원격근무제로 주춤했던 주 5일 출근일 수는 2021년 83%로 전년 대비 7%p 줄어들었다가 2022년에는 다시 2020년 수준인 89%로 증가하였다.
- ▶ 출근일 수는 늘어났지만, 직장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희망 출근 일수는 주 2.9일에서 주 2.8일로 줄어들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일주일 중 주 5일 출근 비율 (직장인, %)



[그림] 실제 오피스 출근일 수 vs 희망 오피스 출근일 수 (직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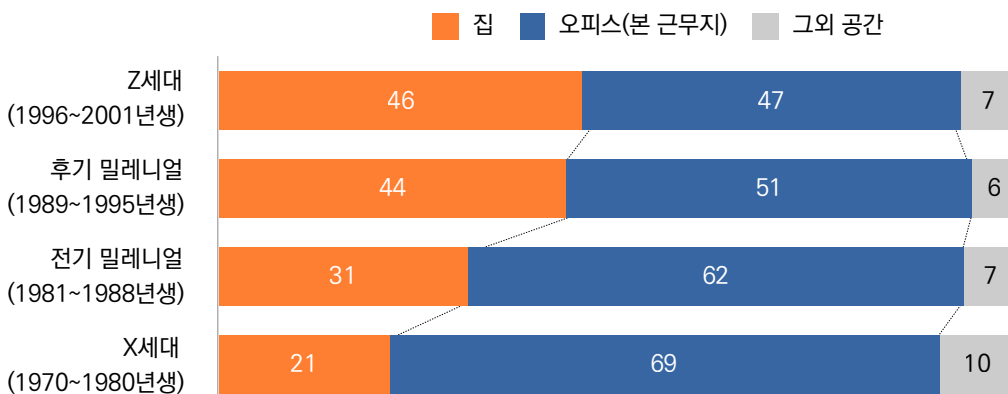


*자료 출처: 중앙일보, "원격근무 빅뱅" 예상 틀렸다...집·카페서 일해본 그들의 반전, 2023. 02. 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8215>)
(원자료: 퍼시스, 「대한민국 오피스 트렌드 리포트 2022」, 2023.1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며 일주일 1회 이상 오피스로 출근하는 풀타임 직장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2.10.26.)

◎ Z세대 2명 중 1명은 집에서 일하고 싶어해!

- ▶ 팬데믹은 근무 장소를 오피스 밖으로 확장하는 기폭제가 됐지만, 직장인들은 집이나 카페 등 새로운 근무 장소를 경험한 후 오히려 일하기 좋은 장소로 '사무실'을 지목했다. 가장 선호하는 근무 장소에 대한 질문에 모든 세대에 걸쳐 '오피스'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 ▶ 근무 장소로 집을 선호하는 비율은 어린 세대일수록 높았는데, Z세대(1996~2001년생)는 46%가 집을 더 선호하여 세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가장 선호하는 근무 장소 (직장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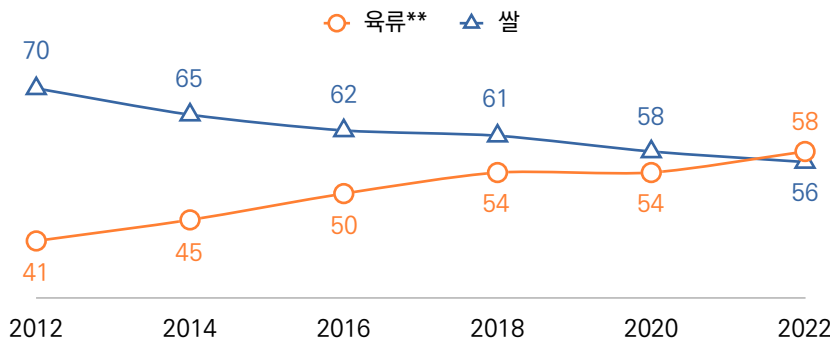
*자료 출처: 중앙일보, "원격근무 빅뱅" 예상 틀렸다...집·카페서 일해본 그들의 반전, 2023. 02. 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8215>)
(원자료: 퍼시스, 「대한민국 오피스 트렌드 리포트 2022」, 2023.1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며 일주일 1회 이상 오피스로 출근하는 풀타임 직장인 1000명, 모바일 조사, 2022.10.26.)



한국인의 주식이 고기로 바뀌었다, 연간 육류 소비량, 쌀 소비량 제쳐!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농업전망 2023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의 육류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
- ▶ 한국인 1인이 1년간 섭취한 육류는 2022년 기준 58kg로 1인당 쌀 소비량 56kg을 넘어섰다.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은 2012년 이후 42%나 증가한 데 반해, 쌀소비량은 20% 감소한 결과이며, 이 같은 육류소비량의 증가와 쌀 소비량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림] 한국인의 육류, 쌀 1인당 연간 소비량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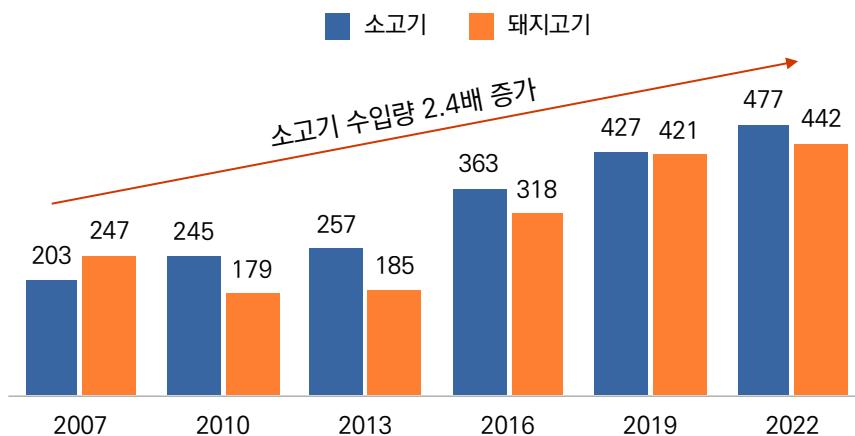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2022년 양곡소비량 조사, 통계청, 2023.1.27. 「농업전망2023 리포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18.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2022년 소고기 수입량, 2007년에 비해 2.4배 증가해!

- ▶ 2022년의 국내 소고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각각 47.7만 톤과 44.2만 톤으로 2007년 대비 각각 2.4배, 1.8배 증가하였다.

[그림] 국내 소고기, 돼지고기 수입량 (천 톤)



*자료 출처 : 농업전망2023 리포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1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29호\(2023년 2월 2주\)](#)

- 대통령 지지도, 노인 기준 연령, 노후 생활 관련 인식, 국민연금 기금 고갈 등

◎ 사회 일반

[성인 10명 중 7명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간다'](#)

연합뉴스_2023.02.08.

[구애→거절→괴롭힘→퇴사... '구애 갑질' 주의보](#)

SBS_2023.02.12.

[사표 품은 청년 '퇴준생'들... "입사후 3년은 다녀야" 14%분](#)

동아일보_2023.02.13.

[청년 2명중 1명 "퇴사 경험"... "업무량 대비 낮은 보상 탓" 63%](#)

동아일보_2023.02.13.

[학생은 줄어드는데 ... 학원은 늘어나네](#)

매일경제_2023.02.08.

[친구 만나면? 게임·수대!... 10대 운동량 세계 '꼴찌'](#)

세계일보_2023.02.11.

["만 24세 이하 '청소년 엄마' 10명 중 6명은 우울 위험군"](#)

연합뉴스_2023.02.07.

[2023 소비 생활 전망 관련 조사](#)

트렌드모니터_2023.02.03.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취약계층일수록 "아직 회복 못해"](#)

연합뉴스_2023.02.12.

[통신비 연체 20대가 가장 많아](#)

조선일보_2023.02.14.

◎ 경제 / 기업

[늘어나는 MZ 임원... "나도 할 수 있다"](#)

조선일보_2023.02.12.

◎ 국제

[日, 급여 깎이고 대우 나빠져도 감내... 佛 "죽을 때까지 일할 순 없어" 시위](#)

동아일보_2023.02.11.

[가난에 코로나 덮치자...아프리카 10살 89%, '학습빈곤' 내몰려](#)

한겨레_2023.02.1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독교 / 종교

[교회, 외로움을 돌보다, 더미션(국민일보)]

[공동체성 강한 교회에선 '네 가지 감정' 가질 수 있다](#) _2023.02.08.

[시가 만든 '3분 카레' 설교에 대한 3가지 시선](#)

더미션(국민일보)_2023.02.08.

[개신교 사업 공공성·투명성 높이니... 정부 지원 예산 경총](#)

더미션(국민일보)_2023.02.10.

◎ 기획기사 : 탄소빌런, 서울 (한국일보)

[1. 서울만 뒤쳐졌다](#) _2022.12.13.

[2. 태양광 좌초시키기](#) _2022.12.14.

[3. 건물을 잡아라](#) _2022.12.15.

[4. 온돌과 히트펌프](#) _2022.12.16.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룡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름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회성교회 (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시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दन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감덕규, 강영원, 강정남, 강종희,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권순홍, 김고은, 김관상, 김기혁, 김동찬, 김동하, 김대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성현,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기,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인수, 김종천,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 찬, 김태철,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나윤만, 남기환, 남도현, 남성태, 노기환, 노현민,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상훈, 박세용, 박승수, 박영철, 박영호, 박재덕,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지혜,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변형석,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경복, 서기원, 서연우, 서영진, 서우정, 서은영,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오뜸, 신명자, 신승민,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심명현, 안요한,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양승일, 엄정석, 여삼열, 오강일,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진웅, 유형창, 윤도형, 윤동하, 윤상현, 윤성덕, 윤여민, 윤영조, 윤정규, 윤치호, 윤홍경, 이경만, 이경선, 이국희, 이기원,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열, 이상성, 이상호, 이석윤, 이석준, 이선진, 이성근, 이성득,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재열, 이재혁,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규, 이현식, 이형근,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원하나, 장병철,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준영, 장진수, 장재영, 장형철, 전근영, 전병철, 전응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영자,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진혁, 정재웅,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헌, 차인화,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명호,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원경,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최호균, 한동준, 한병록, 한영숙,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경동교회(담임목사 임영섭), 김지한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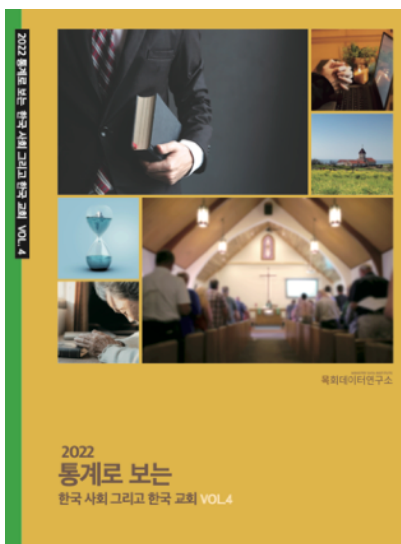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연구소 소식 |

- 2022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 전체를 모아 엮은, <2022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4>를 출판하였습니다. 책 출판을 위해 재정 후원해 주신 일산 한소망교회(류영모 목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분들에게는 이미 배포해 드렸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한 분이나, 후원자가 아니지만 꼭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